

커피 한잔

처음에는 식사를 함께하자고 했다. 팸투어 사업을 마무리하고 잔금 지급이 완료된 직후였다. H사의 대표가 일 년 동안 신세를 많이 졌다며 레스토랑으로 모시겠다고 했다. 어찌다가 그 사업을 중간에 맡긴 했지만, 사업의 효과성도 의문이었고 H사의 일 처리도 영 맘에 들지 않았다. 정산서류도 미비한 점이 많아 몇 번을 보완하게 한 후 마감일 임박해서 준공 처리를 해주었다. 통장에 사업비가 입금되니 인사치레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식사 제의를 거절하자 차라도 한잔하자며 근처에 있는 전통 찻집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표님과의 식사나 커피는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마음만 받겠습니다.” H사의 대표는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커피는 내가 대접했다. 준비실에서 커피믹스를 한잔 타서 건네주었다.

관광과로 발령받아 처음으로 팸투어 사업을 맡았을 때는 ‘팸투어’의 뜻도 몰랐다. 사전을 찾아보고 전임자와 팀장에게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서야 어렵듯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관광이라는 것은 본인의 경비로 여행을 하는 것인데 팸투어는 우리 돈을 들여서 외국인을 공짜로 관광시켜주는 사업이었다.

관광사업은 굴뚝 없는 공장에 비유되어 21세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내가 근무했던 기관이 그 선도에 있었다. 그래서 추진한 것이 팸투어 사업으로, 우리 기관의 부담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유력 인사를 초청해 한국 관광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이 귀국해서 많은 중국인을 한국으로 보내도록 해서 해외 관광객을 늘리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었다.

H사와는 수년째 용역계약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해에도 내가 업무를 받았을 때 절반은 완료된 상태였다. 나는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은 C 주무관으로부터 업무를 인수하여 연말까지 나머지 절반을 마무리하였다. 그런데 사업 중에 석연치 않은 것이 몇 가지 있었다. 첫째는 섭외비였다. 우리 예산으로 항공료와 국내 체재

비 일체를 주는 외에 따로 섭외비가 있었다. 이것은 중국 지방정부의 시장이나 고위 간부를 초청하기 위해 특정 단체에 섭외를 의뢰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 내에서 이동하고 숙박하는 비용까지도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었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고 효과도 크지 않아 내부 논의를 거쳐 몇 년 동안 해오던 사업을 다음 해에 폐지했다. H사에 비상이 걸렸다. 팜투어 사업을 부활시키려고 집요하게 찾아왔다. 내가 전통차 한잔이라도 받아 마셨으면 하고 싶은 말을 못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커피 한 모금 얻어 마시지 않았기에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작고, 국내 체재비 외에 섭외비나 중국 내 소요 경비까지 지급하는 것이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렇게 사업이 폐지되고 2년이 지나 팜투어를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사원에서 팜투어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유를 알아보니 우리 부서에서 팜투어 사업을 폐지하자, 오랫동안 이 사업을 담당했던 나의 전임자 C 주무관이 자신의 부서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기획해서 다시 H사와 추진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C 주무관과 H사의 비리를 조사하던 감사원에서 과거에 둘이 손잡고 추진했던 사업 전체를 추적해서 조사하고 있었다.

별도로 마련된 감사장에 한 달 내내 불러 나가 감사를 받았다. 그동안 추진했던 팜투어 사업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회계서류도 모두 제출했다. 전임자 C 주무관이 H사와 공모하여 사업비를 부풀렸고 금품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감사관은 나도 모든 걸 전임자로부터 물려받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했고 더구나 H사로부터 금품 같은 것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해도 믿지를 않았다.

“커피 한 잔은 얻어 마셨을 거 아녜요?”

“아닙니다. 커피 한 모금도 얻어 마신 적 없습니다.”

정말로 물 한 모금 얻어먹은 적이 없었기에 너무도 당당하게 대답했지만, 감사관은 얼굴에 냉소를 띄었다.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한통속이면서 잡아떼기는’이라고 말하는 것을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회계서류를 조사하고, 계좌를 추적하고, 출입국 기록과 근무상황부를 점검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작은 실수가 있었는지 몰라도,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눈곱만큼도 걸릴 것이 없어서 마음은 편안했다. 일주일쯤 지나고부터 감사관의 태도가 달라졌다. 나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둔 것이다. 반면 나도 모르고 팀장과 과장도 모르고 있던 C 주무관의 행적이 드러났다. 그는 수십 번이나 중국을 드나들었는데 경비 중 일부는 H사에서 제공했고 더러는 휴가나 조퇴를 받지 않고 가기도 했다. 섭외비나 중국 내 영수증의 진위를 조사한 결과 가짜 영수증이 상당수 나왔다. 결국 그는 파면이라는 최악의 징계에 더하여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흔히 사과 상자에 담긴 돈뭉치만 금품으로 생각하지만, 커피 한 잔도 금품이 되어 우리의 옷을 더럽힐 수도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때문에 마지못해 얻어 마시는 커피 한잔, 음료수 한 병이 족쇄가 되어 공정한 업무 처리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용역 업체로부터 식사 한 끼를 대접받았다면 내가 팸투어 사업을 폐지하자고 부서장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커피 한잔을 얻어 마셨다면 감사관 앞에서 고개를 킁킁거리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전통차 한 잔 얻어먹는 대신 내가 커피믹스 한잔 타주길 참 잘했다.